▶▶ 매일 INDEX

2면
학연교수제 국내 최초 도입
전북대, KIST와 협약체결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음 10월 17일) 제266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전북 거리두기 2단계 4곳으로 늘어

완주 이서 오늘부터… 도내 10일간 131명 확진

도, 병상 부족 대비 생활치료센터 운영 논의 중

전북도는 11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조치를 시행한 군산, 익산, 전주에 이어 혁신도시 지역인 완주군 이서면도 2단계 격상조치를 협의·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1주간 국내발생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16명인 매우 위중한 상황으로, 비수도권에 대해 전체 1.5단계로 격상하되 확산속도가 빠르고 지속적으로 확산 중인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2단계 격상 조치를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북도도 11월 29일 오후 4시에 14개 시군과 '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단계 격상 방안을 협의했다.

〈관련기사10면〉

이 결과 이미 2단계 조치를 시행한 군산시(11월 28일 0시~별도 조치시), 전주·익산시(11월 30일 0시~별도 조치시)와 혁신도시 지역인 완주군 이서면(12월 1일 0시)을 2단계 격상조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근 도내 환자발생 추세는 일상생활 속 김장모임 등 가족·지인을 기점으로 병원, 직장과 어린이집, 유치원, 고등학교 등에서 최근 10일 동안 13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도는 병상 부족에 대비해 군산·남원의료원에 코로나19 전담 추가 병상을 확보 중이며, 무증상 확진자 치료시설인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자 논의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1.5단계와 달라지는 주요 방역조치로는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해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일반관리시설에도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로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 음식 섭취 금지되고,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국공립시설은 50%→30%로,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전면허용→50%,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20%로 인원이 제한된다.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단계 격상에 따른 지역 주민 혼동방지와 방역수칙 조기 정착을 위해 도와 2단계 격상 시군이 함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토록 하고 점검 대상시설은 당초 표준점검 30%에서 전수점검으로 확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점검하고, 이미 구성·운영 중인 업종별 민간 자율점검단을 활용해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가정, 직장, 다중이용시설 등 겨울철 난방기 사용과 밀폐 환경으로 인한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환기(2시간마다 1회, 10분 이상)와 소독(탁자·의자·출입구 손잡이 매일 1회 이상) 수칙 안내 및 점검을 집중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어떤 곳도, 그 누구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직 사회적 거리두기만이 가장 강력한 방역"임을 강조하고, 특히 "외출과 모임 자제, 수능 이후 가급적 집에서 머물기, 마스크 착용과 겨울철 환기와 소독 철저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시, 2단계 집합금지 415곳 업소당 특별 지원금 '100만원'

지난달 30일, 최명규 전주부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문을 닫는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을 발표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문을 닫은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에 특별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역학조사반과 선별진료소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문을 닫는 휴·폐업업소를 지원하고 신속한 감염경로 파악에 나서는 등 한층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시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문을 열거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반면 점검 결과 중점관리시설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문을 닫은 유흥시설 5종에는 자체예산을 편성해 지난 8.15 재확산 때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되는 즉시 1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지난 9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종료됐을 때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한 고위험시설 1169곳에 1차 휴업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2단계에는 노래방 등 나머지 4종의 중점관리시설이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415개 유흥시설이 지원 대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20명 이상 14일 지속되는 대유행에 대비해 ▲역학조사팀 확대 ▲선별진료소 확대 ▲이동검체반 신설 ▲중증도평가센터 운영 및 자가치료 관리 매뉴얼 제작 ▲민간 구급차 환자 이송반 운영의 5가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시는 기존 10개 팀으로 운영해 온 역학조사반을 20개 팀으로 2배 확대해 보다 신속하고 발 빠른 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역학조사반은 고위험시설을 우선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병원 내 전파위험을 차단하고 신속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덕진진료실과 화산체육관 2곳이었던 선별진료실에 검사부스를 확대하고, 전주종합경기장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를 추가 운영하는 등 3개소(13개조)로 확대한다.

특히 시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역사회 n차 감염에 대응하고, 집단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집단시설을 찾아가 검체를 채취하는 이동검체반(3개)도 운영키로 했다.

동시에 시는 중증환자 발생과 병상 부족에 대비해 화산체육관 내에 무증상 환자와 경증 환자 등 자택치료자가 증상을 체크할 수 있는 중증도 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자가치료 관리 매뉴얼도 만들기로 했다.

끝으로 시는 사설EMS(민간구급차) 2개 업체와 협력해 코로나19 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위한 총10대의 민간 환자이동반도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이날 0시를 기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에 대한 집합을 금지하고, 도서관·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실내시설의 운영을 전면 중단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준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에 AI까지… "엎친데 덮쳤다"

송하진 지사, 정읍 농장 최고수준 차단 방역 총력

전북도는 정읍시 소성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에 따라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발생 농장에 사육중인 오리 1만 9000수는 지난달 28일 신속히 살처분을 완료했고, 반경 3km 이내 6개 가금농장 468천수(닭 5호, 오리 1호)는 지난달 29일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했다.

〈관련기사 8면〉

도는 도내 14개 시군에 설치·운영중인 거점소독시설을 당초 23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발생지역과 주변 철새도래지 소독을 위해 무인헬기 2대와 드론 2대를 투입해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AI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송하진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전북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를 지난달 29일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도내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만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농가 등이 함께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각 시군 단체장들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를 실시해 줄 것"과 "가금농장 관계자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저수지·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